밧세바-우리아 패턴 vs 유체이탈 패턴

(사무엘하 15:1~37)

1.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오늘 말씀으로 <밧세바-우리아 패턴 vs 유체이탈 패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밧세바-우리아 패턴 vs 유체이탈 패턴’
지난 시간에 “밧세바-우리아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것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타락한 상태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선민들에게는 유체이탈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대표하는 밧세바-우리아 패턴과 다윗이 대표하는 유체이탈 패턴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 안에서 상황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빠져나와 자기 육체를 포함한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체이탈이란 말이 많이 사용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법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자기가 해놓고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독한 술을 계속해서 마시더라니까 /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집 앞에 와있더라니까’라는 말처럼 마치 자신의 행동을 남이 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시사평론가 김어준 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 청계천 복귀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의 삶이 아주 풍요롭게 되었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한 일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칭찬하는데 이런 식의 어법이 많았던 것을 김어준 씨가 꼬집어 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는 이러한 화법이 완전히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 밑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태를 관장했던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리를 받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공개적인 석상에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는데 이것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육체 연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해양경찰의 구조방식에 질타를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해양경찰청장을 불러다 야단을 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대통령 휘하의 기관들인데 정작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들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비난했는데 이것이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러한 유체이탈 패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겪으실 일인데도 고난 받고 죽임 당하는 것을 대비하지 않으시고 꼭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육체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이탈해서 하늘에 가있습니다. 마치 돌에 맞는 육체가 남의 일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변호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자랑을 위한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는데, 성경에서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고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자기방어나 자기변호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차원에서 유체이탈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육체의 연관성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함입니다. 내 마음은 내 육체의 연관성에서 내 마음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내 육체를 끌고 가시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내 마음은 내 육체의 삶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밧세바-우리아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육체에 굳건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것들 중에 반응을 보이면서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추진하고 노력합니다. 우리아로 대표되는 장애가 생기면 극복하고 없애며 살아갑니다. 밧세바 대신 돈이나 사업이나 자식의 형통이 대입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우리아 패턴의 대표적인 전형의 압살롬과 유체이탈 패턴의 대표적인 전형의 다윗의 모습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밧세바에 해당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였습니다. 이 왕위를 마음에 담고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치기위해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계획해 나가는데 이 목적 지향적 인내심에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4년 동안이나 민심을 사기 위해 성문에 진을 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정의를 베푸는 척하는데 거사를 도모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깊었던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의 세력가들 20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전령을 전국으로 보내게 되고 거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데 바로 밧세바-우리아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은 다윗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다윗에게 유체이탈 패턴이 드러납니다.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이런 유체이탈 패턴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과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치는데 왕위가 전적으로 남의 일 같습니다. 그 행동이 마치 낡은 신발을 벗어던지듯이 주저 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4년을 준비해서 민심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과장된 말이고,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모든 백성이 따라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4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아무리 주도면밀하였어도 전쟁 경험이 없었고 다윗은 백전노장이었고 그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한 일당백 일당천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전령을 들었을 때에 원한다면 혼찌검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마치 왕위가 자기 것이 아닌 듯이 행동하며 도망쳐버립니다.
왕이 아닌 사람도 목숨을 걸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판인데 더군다나 아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목숨을 걸고 쳐들어오는데, 그 왕위를 지키고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하는데 다윗은 그 왕위를 간단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추종자 중에 블레셋 사람 잇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살해 의도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추종한 사람입니다. 잇대가 다윗을 호위하기 위해서 좇아오자 다윗은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는 정처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를 따라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시기였고 또한 잇대는 이방인으로서 다윗을 따랐던 충성어린 사람인데 그를 돌려보냈

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의 종교지도자들이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윗의 편을 들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법궤는 선민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이고 외적 상징입니다. 법궤를 소유함으로서 나라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왕위는 고사하고 정말 사소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유체이탈의 다윗의 태도야 말로 선민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유체이탈을 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버리고 버리는데 마지막에 다윗의 모사 중에 아히도벨과 후새가 나옵니다. 이 중에 후새는 다윗의 편을 들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자 다윗이 갑자기 그의 모든 모략이 패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사 후새를 예루살렘에 보내며 아히도벨과 대립하게 하는데 압살롬이 후새의 모략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성공적 모반이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압살롬의 4년간의 민심을 사는 행적도 못 본척했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왔으며, 잇대를 버리고 법궤를 멘 종교지도자들을 버린 이 판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단 한 마디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다윗의 마음에 소원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좋았지만 압살롬은 후새의 모략을 선택하면서 압살롬의 모든 성공적 모반이 끝장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합니다. 애쓰고 저항하고 반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체이탈로 남의 일을 말하듯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그 사건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다른 말로 유체이탈입니다. 자기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통령들의 유체이탈 화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내 육체의 연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남의 일인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공간(십자가에서부터 하늘까지)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누구도 모르는 주님께서 만드셨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므로 육체의 연관성을 이탈하는 유체이탈입니다. 그 공간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만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 연관적인 내 삶에 대해서는 유체이탈 한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사기치고 미워하더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누가 나를 예쁘게 봐줄지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좋아해준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해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비난하더라도 남의 일처럼 여기

며 사는 유체이탈의 삶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한 마디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4년 동안 준비했던 압살롬의 반란이 끝장나듯이 모든 상황이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체이탈의 삶의 패턴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은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삶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육체와 연관된 세상에서는 죽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시듯이, 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판국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한 마디, 이틀에 두세 마디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행한 결과 후새로 인해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되고 저절로 다 회복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끊임없이 밧세바-우리아 패턴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죄적 체질이 십자가 생활화로 묶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보여준 유체이탈 패턴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육체의 연관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